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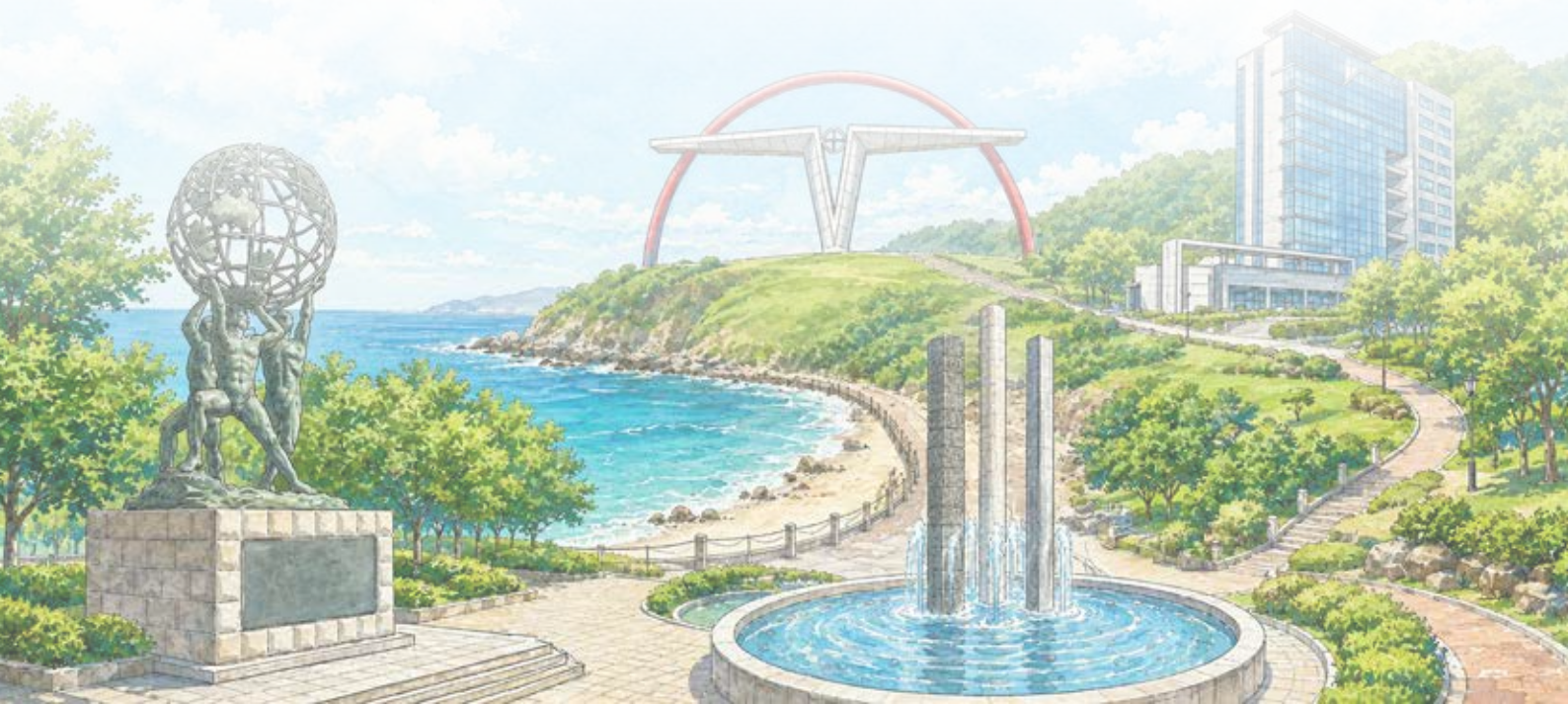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 KROSS



# CONTENTS

|          |                 |    |
|----------|-----------------|----|
| <b>1</b> |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1  |
| <b>2</b> | 산학협력 정책 인사이트    | 8  |
| <b>3</b> | 산학협력단 소식        | 13 |
| <b>4</b> | 알송달송 산학협력 용어 해설 | 18 |
| <b>5</b> | 곰두리 이야기 #2      | 24 |



#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 1

##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UICF FLAGSHIP BRAND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향하는 중장기 수익모델인 **THE FIRST MOVER**는 과거 선도대학의 선도사례를 빠르게 쫓아가던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강원대학교가 보유한 연구성과, 기술, 인프라, 연구자 및 기업 지원 제도를 총 망라해 미래 산학협력을 선제적으로 리드하는 선구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비전이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연구비 수주와 같은 단기적 외부 재원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대학의 우수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사업화하여 공격적 기술사업화 수익 창출, 투자지분 매각 수익 등으로 이어지는 자립형 재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보유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엔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이 작동되는 물리적 공간이자 핵심 인프라 거점이 바로 **KNU 산학협력단지**입니다.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고도화하여 유망 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대학 내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하는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KNU 스타트업 큐브부터 성장기 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도약기 기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산학연혁신허브)까지 아우르는 성장단계별(Pre-BI→BI→Post-BI) 공간 지원 체계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단지 내 기업들은 대학 교원과의 공동 연구를 상시 진행하고, 첨단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검증된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채용하는 등 강원대학교 산학 융합 생태계의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THE FIRST MOVER와 KNU 산학협력단지로 대표되는 강원대학교 산학단의 FLAGSHIP BRAND와 함께 **춘천·강릉·삼척·원주캠퍼스의 4개 산학협력단을 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산·학 협력을 선도할 KNUICF BRAND-STORY**를 소개합니다.

## 2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지역정주형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 학업 몰입 환경 조성



|      |                     |
|------|---------------------|
| 사업명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
| 지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사업기간 | 2025. 5. ~ 2034. 2. |
| 총사업비 | 약 213억 원            |

#### STIPEND TIMELINE

##### 과기부 공모

· 29개 대학 참여

##### 강원대학교 사업선정

· 사업기간: 2025. 5. ~ 2034. 2. (9년)  
· 총 사업비 약 213억 원

##### 강릉 · 원주 캠퍼스 확대 검토

· 1단계(2027): 시범사업 운영 검토 중  
· 2단계(2028~): 캠퍼스 사업 참여

2025. 2.

2025. 5.

2026. 6.

### K 쉽고 편리한 연구행정 정보 공유



누적 배포 건수 총 159건

#### CARDNEWS TIMELINE

##### 카드뉴스 첫 발행

· 제1호 카드뉴스 발행  
· 홈페이지, SNS 활용

##### 카드뉴스 포맷 정립

· 사가독성 중심의 레이아웃 디자인 정착

##### 카드뉴스 아카이빙

2020. 5.

2021. ~ 22.

2026. 6.

- 2 -



### 3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연구의 몰입과 연구 혁신의 가속화

교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대형 과제 수주 및 우수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핵심 연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단계별 지원으로 연구환경 조성(정착)→공모과제 기획 지원(신청)→논문게재·특허 지원(성과)→우수 연구자 포상(예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3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원·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캠퍼스 간 프로그램 통합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수 총 35개 프로그램

총 지원예산 연간 85억원 내외

재원 간접비, 대학회계, 기부금 등

강원대학교  
연구자 성장체계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정착  
지원

중견연구자  
성장

우수 성과  
확대

글로벌  
연구 확산

신임교원  
유입 확대

#### K 대학과 기업의 연결, 지역의 내일을 열다

대학과 기업의 비즈니스 발굴·협업·지원·기록·피드백을 모두 수행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역량과 기업 기술수요를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하고, 기업-대학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KNU COLLABO 플랫폼입니다. KNU COLLABO 플랫폼은 현재 1,100여개 유망기업 정보를 집적·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16개 기업의 상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K-차트(K-Chart)와 K-모듈(K-Module)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와 대학의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기업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술매칭, 인프라 공유, 성과 모니터링 등 4대 핵심기능 기반 전 과정 관리로 산학협력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10-2024-0046011

상표등록 40-2024-0065377

COLLABO  
TIMELINE

플랫폼 체계 기획

·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수립  
· KO-파트, K-모듈 개념 설계

플랫폼 개발 및 시범 구축

· 산학협력 인프라 통합  
· 대학 내 기업 지원사업 모듈화  
· 기능 검증률 통한 오류 개선

플랫폼 정식 오픈

· 특허 및 상표 등록

플랫폼 고도화 추진

· 지원모듈 세분화 및 개선  
· 기업정보 구체화 등 개선

2022.

2023.

2024.

2026.

## 4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도약



강원지역 우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새로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단의 글로벌 산학협력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중국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난징시 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 비즈니스 매칭, 글로벌 IR 및 투자연계, 현지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Dive in CHINA TIM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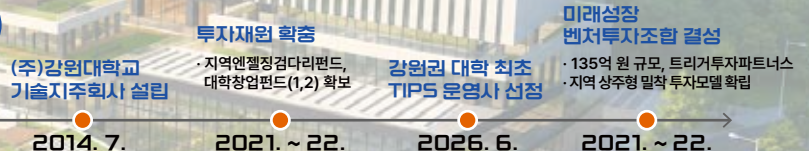
### K 혁신에 투자하고, 강원대학교 미래를 키우다



(주)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창업·투자 전문 기관(엑셀러레이터)'입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을 출자(현물)하여 연구소기업 및 자회사를 설립·육성하고, 자체 결성한 창업 펀드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강원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독보적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권 대학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유망 기술창업 기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고, 135억원 규모의 벤처펀드인 '강원대-트리거 미래성장 벤처투자조합'을 성공적으로 결성하여 지역 상주형 밀착 투자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LIPS)' 운영 기관에 잇따라 선정되며 로컬 창업과 딥테크까지 지원의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술지주회사 TIMELINE

|                 |         |
|-----------------|---------|
| 지역엔젤검다리펀드       | 83.5억 원 |
| 강원지지도 대학창업펀드 1호 | 27.2억 원 |
| 강원지지도 대학창업펀드 2호 | 34억 원   |
| 강원 미래성장 벤처투자조합  | 135억 원  |





## 5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지역 우수 인재의 미래나일 직무 경험

고용노동부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우수성을 입증한 '미래일 일경험 사업'은 채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인재양성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 직접 출퇴근하는 전형적 인턴십 형태를 탈피하여,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기업의 현업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직무 포트폴리오를 완성 하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영·사무, 광고·마케팅, IT 등 실무 수요가 높은 핵심 직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프로젝트 수행에 앞서 사전 직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실무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과정에 걸친 현업 전문가와 기업 전담 멘토의 밀착 코칭을 지원은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                     |
|------|---------------------|
| 사업명  | 미래나일 일경험 사업(프로젝트형)  |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기간 | 2026. 3. ~ 2027. 2. |
| 총사업비 | 약 7억 원              |

#### 갯생프로젝트 TIMELINE

##### 사업기반 마련

· 최초 사업 선정

2024. 3.

##### 사업 인프라 고도화

· 도내혁신기관 협력 다각화  
· 갯생프로젝트 브랜드화 추진

2025. 3.

##### 3년 연속 사업 선정

· 안정적인 사업 성과 정착  
· 원주캠퍼스 운영 확대 추진

2026. 3.

### K 지역혁신 주체들의 연결과 상생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은 대학-지역-산업을 융합하여 상생 가치를 창출하는 강원대학교 최대 규모의 자·산·학 협력 축제입니다. 매년 춘천캠퍼스 대동제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RISE사업단, KNU창업혁신원, SW사업단 등 학내·외 주요 산학 협력 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하는 '투자 유망 기업 IR 피칭데이'와 '파트너스데이'가 운영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주요 혁신 기관이 모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산·학 상생 발전 포럼'이 심도 있게 개최됩니다. 재학생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INSIDE K'와 'IP 및 기술 이전 컨설팅',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꿈지락놀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대학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강원대학교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                  |
|-----------|------------------|
| 개최시기      | 매년 9~10월(대동제 기간) |
| 개최횟수      | 총 7회(2017~현재)    |
| 누적 참여자 수  | 총 24,095명        |
| 누적 프로그램 수 | 총 111건           |

#### 산학협력주간 TIMELINE

**제1회 산학협력주간**  
· 19개 프로그램, 2,270명 참여  
· 3일간 개별행사 진행

2017. 10.

##### 대동제 연계 개최

· 제3회 산학협력주간 대동제  
연계 개최로 학생 참여 확대

2019. 9.

##### 최대 인원참여

· 제 회산학협력주간  
· 19개 프로그램, 5,268명 참여

2024. 9.

##### 산학협력주간확대

· 통합에 따른 강릉·원주 확대  
운영 추진

2026. 9.

## 6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꿈지락! 상상이 자란다



|      |                     |
|------|---------------------|
| 사업명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프로젝트형)  |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기간 | 2026. 3. ~ 2027. 2. |
| 총사업비 | 약 7억 원              |

#### 꿈지락! 상상이 자란다 TIMELINE

제1회  
드론페스티벌 개최  
· 드론체험 중심의 행사 개최

2021. 10.

#### 꿈지락! 상상이 자란다 TIMELINE

꿈지락! 상상이 자란다  
· 드론페스티벌 명칭 변경  
· 메이커 체험 포함  
프로그램 확대

2024. 9.

#### 지역기업 참여 확대

· 지역기업 10개사 참여 및  
지역기업 상생관 운영

2025. 9.

대학 보유 인프라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 지·산·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폭넓은 참여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이 손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융합 체험부스로  
구성되고 코딩 로봇 체험, 3D 펜 활용 입체 구조물 만들기, 레이저 각인, 아크릴  
무드등 제작 등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의 벽을 허물고 지역 주민들을 캠퍼스로  
유인함으로써 대학이 도시의중심이 되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미래 과학자·창업가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 효과와 함께, 대학-지역  
공동체 간 유대감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대학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 K 산학협력 지식의 교차점, KNU KROSS



|                 |         |
|-----------------|---------|
| 지역엔젤창업다리펀드      | 83.5억 원 |
| 강원지치도 대학창업펀드 1호 | 27.2억 원 |
| 강원지치도 대학창업펀드 2호 | 34억 원   |
| 강원 미래성장 벤처투자조합  | 135억 원  |

#### KROSS TIMELINE

KROSS 창간  
· KROSS 창간호 발간

2025. 3.

디자인학과 교보재 활용  
· 디자인학과 수업 교보재 활용

2025. 7.

KROSS 2026-1호 발간  
·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포함

2026. 3.

2025년부터 정기(분기별) 발행하고 있는 KROSS는 산학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대학이 수행하는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공유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단순 행정적 지원과 관리적 측면을 넘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다각적인 전문성을 대내·외 부각시키고 대학-지역-산업의 견고한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주요 지표 분석에  
기반한 정책 시사점, 기술사업화 및 창업 성공 사례,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정책 동향 및 연구 행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강원대학교의 탁월한 연구  
경쟁력과 지·산·학협력 역량을 널리 알려 지역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7 산학협력단 브랜드 스토리

### K 대학이 도시가 되는 변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지역-대학 상생발전 KANGWON FORUM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관과 연계하여 대형 지·산·학 협력의 장을 여는 발표자 중심의 청중 참여형 토론회입니다. 지역 언론사 및 기관 등과 공동 개최하며, 연도별 세부 주제와 연관된 교원, 지자체 및 기업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역상생 관련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산학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토론회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 K 경계 없는 지식, 한계 없는 소통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KNU OPEN SEMINAR는 신학기 개강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재학생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학협력 현안을 홍보·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강 형태의 행사입니다. 지역 언론사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주요 참석자는 세부 주제와 관련된 교직원, 재학생,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토론, 세미나 정례주제 발표, 산학협력 프로그램 홍보 등이 진행되며 비전문가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와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산학협력 정책 인사이드

---



첨단산업 · 지역혁신 · AI가 만드는 새로운 대학 혁신 생태계



**‘ANCHOR(닻)’**라는 명칭에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의 RISE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사업이 분산 운영되거나 대학 중심의 사업 추진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ANCHOR 체계에서는 학생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성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였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사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과 연계하는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하였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하여 우수 지자체와 대학에는 추가 지원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편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이다. 교육부는 기존 17개 시·도 단위 사업 운영을 넘어 초광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간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계약학과,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산학협력단지 운영 등 기업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지원, 기업협력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대학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NCHOR 체계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가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학협력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기획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 공유대학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 산학협력 정책 인사이트 :

첨단산업 · 지역혁신 · SI가 만드는 새로운 대학 혁신 생태계

##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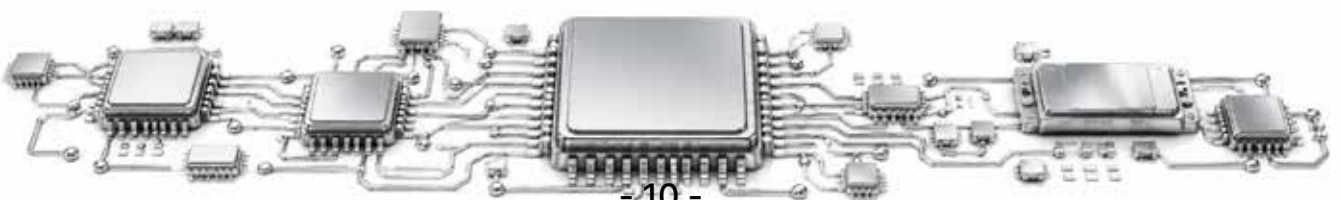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첨단산업의 지역 분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포함하여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 거점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첨단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산학협력단은 반도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와 함께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시험·분석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RISE 사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3 산학협력 정책 인사이트 :

첨단산업 · 지역혁신 · AI가 만드는 새로운 대학 혁신 생태계

## ☑ AI 융합 중심 첨단산업 인재양성 확대... 대학의 역할 강화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AI와 첨단산업을 연계한 실무형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AI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고, 졸업 후 지역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부트캠프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융합과정을 신설하고, 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와 AI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였다. 산업체가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젝트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은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와 장기 현장실습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AI 교육을 넘어 첨단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초거대 AI,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디지털 연구환경 구축 등 AI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을 AI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강원대학교는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AI 분야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AI 기반 실무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 현장실습,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AI·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I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기업 맞춤형 교육,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AI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협력단 소식

---

- 강릉산학협력단장 인터뷰
- 산학협력단 NEWS





## 1

## 강릉산학협력단장 인사말

“

연구와 지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릉산학협력단장 이충일입니다.

2026년은 강원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각 캠퍼스가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산학협력단은 해양바이오, 천연물,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축적된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술이전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운영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각 캠퍼스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산학협력단은 **연구성과 사업화와 지·산·학 협력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산학협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자에게는 든든한 연구지원 파트너가 되고, 기업에게는 가장 먼저 찾는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강릉산학협력단장 인터뷰

### Q1 강릉산학협력단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산학협력단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연구성과를 산학협력 성과로 연결하는 **연구 기반 산학협력 역량**입니다.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기업협력, 연구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강릉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2 강릉산학협력단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학협력 분야는 무엇입니까?

강릉산학협력단은 **해양바이오와 천연물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이 보유한 해양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소재와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릉을 대표하는 기술사업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Q3 해양바이오·천연물 분야의 연구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연구성과가 논문과 특허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지원과 기업 매칭 프로그램 등 기업과 연구자가 함께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Q4 지역 기업과의 협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현장 경험이 결합될 때 산학협력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강릉산학협력단은 단순한 기술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Q5 강릉에는 다양한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산학협력단 운영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은 대학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이 함께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기술교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만들어내는 성과가 지역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2

## 강릉산학협력단장 인터뷰

**Q6** 향후 강릉산학협력단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싶은 대표 성과는 무엇입니까?

강릉을 대표하는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기술이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일자리와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강릉산학협력단이 연구성과 사업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7** 산학협력단장으로서 연구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가 올바르게 활용되기를 원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양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3 산학협력단 NEWS

### ☑ 하나의 꿈을 향한 동행,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 TF '원주'에 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아우르는 산학협력의 혁신 엔진이 요동치고 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필두로 강릉·삼척·원주 산학협력단장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강원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TF(4월 출범)'가 지난 춘천캠퍼스와 강릉캠퍼스에 이어, 이번에는 원주캠퍼스에서 세 번째 순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본격적인 '산학협력단의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깊이가 다르다.

### ☑ PART 1: "더 단단하게" - 산학협력단 통합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논의

본격적인 TF 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회의에서는 '산학협력단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전사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캠퍼스가 가진 고유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프로세스 표준화로 현재의 차이 극복과 화학적 융합 발현**'에 깊이 공감하며 결속을 다졌다.

### ☑ PART 2: "더 넓게" - 발전계획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 자문

이어진 본 TF회의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소통하는 활기찬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TF회의에는 그 동안 우리 대학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온 외부 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미래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각 캠퍼스 단장들과 TF위원들은 전문가들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관점의 다각적인 관점의 논의**를 나누었고, **대학 내부의 현장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결합**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채울 혁신적이고 실행력 높은 아이디어들이 풍성하게 쏟아졌다. 대학의 발전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산학협력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아이디어를 나누었던 이번 TF회의는, 산학협력단의 성공적인 미래를 집단지성으로 함께 채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 3

## 산학협력단 NEWS

### ▣ PART 3: "더 정교하게" -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강

업무전문성 고도화와 전략적 안목을 넓히기 위한 두 개의 핵심 특강이 연이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문 회계사를 초빙하여 '**산학협력단 통합 재무제표 주요 의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rERP 시스템 도입 전·후의 회계 정보 신뢰성·적시성 변화가 특강의 주요 내용이었고 **행정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자금 관리의 투명성, 캠퍼스 간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 효과를 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전달**했다. 시스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의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공유된 유익한 시간으로 사료된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의 '**강원대학교 지산학(地·産·學) 혁신 전략**' 특강이 펼쳐졌다. **정부의 정책 동향과 연계하여, 우리 대학이 강원도 지역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중소벤처기업들과 어떻게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거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성원들은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안목과 역할을 다시한번 체계화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특강은 산학협력단이 단순한 조직의 결합을 넘어, 업무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 면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강력한 싱크탱크로 거듭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 ▣ PART 4: "더 높이" - 삼척캠퍼스로 이어지는 혁신의 발걸음

춘천에서 다진 단단한 결속, 강릉과 원주에서 싹틔운 풍성한 아이디어와 한층 정교해진 전문성은 다음 목적지인 삼척캠퍼스로 향한다. 삼척캠퍼스에서 이어질 순회 회의에서 또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구체화 될지, 하나의 혁신 네트워크로 거듭날 산학협력단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4.8.(수) 14:00 KNU 스타트업 큐브 중앙홀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해설

---





## 1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기술사업화의 출발점 TLO”



대학에서는 매년 수많은 연구성과와 특허가 창출된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실의 기술을 기업과 연결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주는 전문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 전담조직)라고 한다.

TLO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부터 기술가치평가,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술료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찾고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연구자에게는 연구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연결고리가 된다.

최근 대학의 경쟁력은 단순 논문 수를 넘어 기술이전 실적과 기술사업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TLO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유치까지 지원하는 사업화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TLO는 ‘대학 기술의 영업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을 만나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핵심 조직이다.



## 2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기술지주회사

## “대학 기술창업의 허브,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전문 조직**이다. 일반적인 기술이전이 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직접 사업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기술료 수입뿐 아니라 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기술창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원창업, 학생창업, 실험실 창업과 연계되어 연구성과가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기술 전문 투자회사’**이다. 연구실의 기술이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 "기술료는 어떻게 받을까?"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 기업은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료는 크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된다.

정액기술료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매출과 관계없이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상기술료는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부담은 적지만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경우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액기술료는 '선불 이용권'과 비슷하고, 경상기술료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 4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계약학과



##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인재양성"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과**이다. 기업은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함께 설계하고, 대학은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약학과는 재직자 교육형(재교육형)과 채용조건형으로 구분된다. **재직자 교육형은 기업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을 전제로 운영된다.**



최근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학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계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계약학과는 '기업 맞춤형 학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5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왜 '스타이펜드(Stipend)'라고 부를까?

## "연구를 위한 생활비, 스타이펜드의 유래"



최근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공계 연구생  
활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흔히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라고 불린다.

스타이펜드라는 용어는 라틴어 Stipendium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고대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지급하던 수당이나 생활비를 의미했으며, 이후 유럽에서는 성직자나 학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지원금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펠로우(Fel-  
low), 인턴**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훈련 지원금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원생 인건비가 연구과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타이펜드  
제도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계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며, 대학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활동  
지원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6

## 알쏭달쏭 산학협력 용어 해설



## LINC와 RISE, 그리고 ANCHOR



## "산학협력에서 지역혁신, 그리고 지역성장으로"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다.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가족회사 확대,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반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대학은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LINC**가 '산학협력 중심 사업'이었다면, **RISE**는 '지역혁신 중심 체계'로 대학, 기업, 지자체, 혁신기관이 함께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RISE**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인 '**ANCHOR**' 체계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넘어 지역산업 육성, 인재 정착, 기술사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쉽게 정리하면 **LINC**가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사업이었다면, **RISE**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체계이며, **ANCHOR**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전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곰두리 이야기 #2

---





## 곰두리 이야기 #2



강원1도1국립대학 구성원이 된 우리들은 반가운 변화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낮설지만 기분 좋은 어색함, 하나로 확장된 유대감과 안정감, 많은 관심과 설렘.

반가운 변화는 분명했지만 규정, 지침, 매뉴얼 통합을 위한 검토→수정→재검토→수정을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한편의 두려움으로 뜻을 모으는데 어려움도 있었지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꿈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된 산학협력단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

산학협력 발전계획 TF

통합 운영위원회 구성

산학협력단의 하나된 미래를 위한  
이해와 존중의 포용적 논의 연속



# 산학협력단

UICF 강원대



결국 하나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2=무한대의 시너지와 융합의 성과를 만들어 갈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혁신을 향한 기대 속에서 하나된 산학협력단  
무한한 시너지와 융합의 성과를 만들어 갈 미래  
.. THE FUTURE KNUUICF ..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이동하(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센터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